지상백고좌

목포 달성사 주지 보각 스님

“마음 밭 가꾸는 농사꾼이 됩시다”

12면에 이어

마음 밭에 씨앗 뿌려 농사 지어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
“法의 맛은 맛 중의 맛임을 알라”

“대학에서 학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남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부조하고 보시할 줄 모른다면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한 스님은 1000명이 넘는다. 현재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스님의 60% 이상이 보각 스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들에게는 사회복지도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언젠가부터 ‘직업 승려’, ‘직업 수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자로서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 사회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중생교화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사회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행보가 결국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사회복지를 따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아마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출현하셨을 것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그 구체적 실천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각 스님은 불교사회복지가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수 보살이 〈대지도론〉에서 자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慈)’를 ‘여락(與樂)’ 즉,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 하고, ‘비(悲)’는 ‘발고(拔苦)’ 즉,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비가 실천되지 않으면 무자비해집니다. 달라이라마 스님도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자비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스님은 ‘불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공이 사회 속에 이뤄지도록 해야 함을 힘줘 말했다.

“불공(佛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각 안에서 목탁만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공이 사회 속에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중생에게 친절을 베풀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사회복지는 곧 불공의 실천입니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중생 속에서 실천되고 회향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불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뿐이에요. 깨달음을 사회에 나눠야 진짜 불교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연구와 후학양성은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적 실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다.

보각 스님은 2016년 4월에 인도 쉬라바스티에 ‘보광학교’를 건립했다. ‘보’는 스님의 법명에서, ‘광’은 어머니의 법명 광대행(光大行)에서 따왔다. 지상 2층짜리 건물 2개 동에는 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12칸과 교무실, 화장실 등이 들어섰다. 학생 1명당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20대와 대형스크린을 갖춘 시청각실도 갖췄다. 학교 건립 기금 전액을 보시했던 스님은 지금도 해마다 6000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보각 스님이 30년 동안 불교계 안팎에 기부한 금액만 30여 억원에 이른다. 법문 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해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엔 퀵오토바이를 타고 옮겨 다니며 하루에 7번 법문한 적도 있다. 법문 사례금과 교수 월급, 원고료를 모두 저축해 보시한 것이다.

현장에도 뛰어들었다. 한때 물의를 빚은 소쩍새마을을 인수해 정상화 시켰고 2004년부터는 경기 화성의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인요양시설(묘희원 · 상락원)과 중증장애인 시설(불이원) 등에서 270여 명을 돌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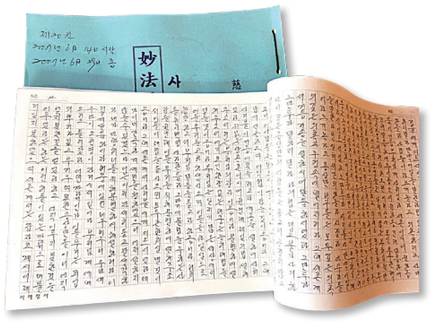
“밥 먹는 시간보다는 더 수행을”

보각 스님은 수행자로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매일 일과(日課)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함경〉에 보면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수행자라고 봅니다. 말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보각 스님이 석주 스님이 쓴 경전 구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각 스님의 사경 노트.

자제공덕회 이사장을 맡으면서는 〈법화경〉 사경을 시작했다. 그간 쓴 사경집만 벌써 206권에 달한다.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적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사경도 같이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동산불교대학에 강의하러 갔더니 ‘나무아미타불’ 10만 8천 번 사경이 졸업 과제라고 합니다. 저는 108만 번을 쓰자고 생각하고 하루에 108번을 4번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5만 번 정도 썼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1독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들에게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불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경전만 봐서는 불자가 아닙니다. 박제된 불교, 절에 머무는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능엄경〉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진짜 불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하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심전경작(心田耕作)’을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탁발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손수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꾸어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야 음식을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야 드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정성껏 기르고 수확한 다음에 먹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입니다. 지혜는 쟁기와 호미이며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항상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력은 내 황소와 같아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감로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 마음수행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봅시다.”

스님의 법문은 계속됐다. 특유의 입담으로 평소 좋아하는 구절을 곁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스님은 〈법화경〉의 “자비로움을 집으로 삼고 인내를 옷으로 삼으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실인의(慈室忍衣)’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비로 집을 삼고 인내로 옷을 삼으라는 뜻이죠. 자비와 인내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툴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된 것은 존경하는 석주 큰스님을 만나면서입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진력하셨던 큰스님은 항상 하심(下心)으로 대중들을 대하셨습니다. 손자, 증손자뻘 사람들이 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스스로 낮추는 큰스님의 모습은 항상 아름다웠고,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항상 ‘자실인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적이 없고,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스님은 석주 스님이 손수 써준 글씨를 보여주며 경전 구절을 하나 더 소개했다. 〈법구경〉에 나오는 “법(法)의 보시는 보시 중 으뜸이고, 법(法)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법(法)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에 으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는 말씀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진리, 법(法)이 다른 곳에 있다면 출가하지 않고 그리로 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法)을 불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부처님 가르침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을 나누는 것이 제일 큰 보시이자 공덕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참맛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만 아는 법, 혼자는 느끼는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알고 실천할 때 불국토(佛國土)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고 정진할 때 모든 욕망은 소멸할 것이며 열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각 스님과의 인터뷰는 유쾌했다. 두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마치고 스님은 바랑을 챙겼다. 화성으로 간다고 했다. 대중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고 신난다는 보각 스님의 여정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유철주 / 작가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